

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52호 [투계 제2678호]

주제 110
(2021)년 12월
25일
토요일
음력 11월 22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민족의 영광과 향도로 빛나는 10년

탁월한 령도의 손길아래 더욱 개화발전되어온 민족전통

공화국의 모든 중하를 한몸에 지니고 온 나라를 위대한 새 승리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의 자욱들

에 우리 겨레의 우수한 민족전통을 더욱 개화발전시키기 위해 바치신 크나큰 심혈과 로고도 뜨겁게 아로새겨져있다.

과 민족체육, 민족놀이를 적극 장려하고 민족음식과 조선훈을 발전시키는것을 비롯하여 민족전통계승과 발전에서 나서는 방도들을 하나하나 세심히 가르쳐주시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온 나라 인민이 설명절과 정월대보름, 추석과 동지날을 비롯한 민족명절들을 뜻깊고 의미있게 보내도록 은정 어린 조치들도 몹소 취해주시었다.

를 장려하고 무용도 민족무용을 더욱 발전시키며 유희오락을 하여도 유희놀이와 같은 민족놀이를 더 많이 하도록 하시었다. 또한 태권도와 씨름을 널리 장려하고 해마다 전국도 대항군중체육대회를 진행하는 것을 전통화하도록 하시었다.

민속전통계승발전의 진로 명시

민족의 우수한 민족전통을 살려나간다는것은 우리 겨레가 수천년을 이어 전해오는 미풍양속과 민족의 슬기와 재능이 깃들어있는 창조물들을 소중히 여기고 변화되는 시대적요구에 맞게 계승발전시켜나간다는것이다.

그이께서는 주제103(2014)년 10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뜻을 이어 우리 나라를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세계적인 선진문명국, 융성번영하는 강국으로 빛내어나가려는것은 조선로동당의 확고한 의지라고 확인하시었다.

민족의 우수한 전통을 적극 살려나간다는것은 우리 민족의 전통을 적극 살려나가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며 김치와 신선로, 평양명

을 장려하고 무용도 민족무용을 더욱 발전시키며 유희오락을 하여도 유희놀이와 같은 민족놀이를 더 많이 하도록 하시었다. 또한 태권도와 씨름을 널리 장려하고 해마다 전국도 대항군중체육대회를 진행하는 것을 전통화하도록 하시었다.

그러나 아무리 력사가 오래되고 훌륭한 민족전통이라고 하여도 지켜주고 꽃피워주는 위인의 손길이 없다면 한갓 지간 세월의 흔적으로만 남게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그이께서는 주제103(2014)년 10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뜻을 이어 우리 나라를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세계적인 선진문명국, 융성번영하는 강국으로 빛내어나가려는것은 조선로동당의 확고한 의지라고 확인하시었다.

민족의 우수한 전통을 적극 살려나간다는것은 우리 민족의 전통을 적극 살려나가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며 김치와 신선로, 평양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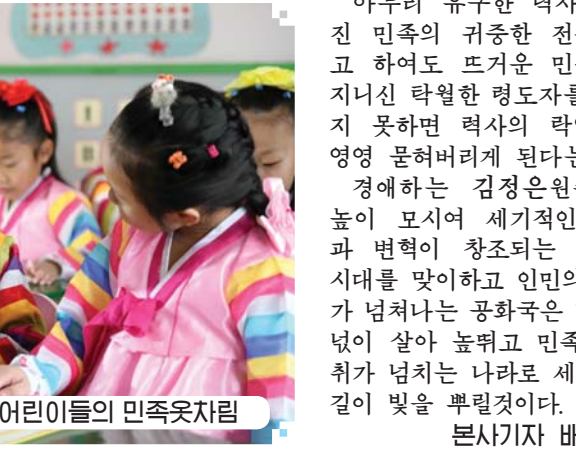
을 장려하고 무용도 민족무용을 더욱 발전시키며 유희오락을 하여도 유희놀이와 같은 민족놀이를 더 많이 하도록 하시었다. 또한 태권도와 씨름을 널리 장려하고 해마다 전국도 대항군중체육대회를 진행하는 것을 전통화하도록 하시었다.

그러나 아무리 력사가 오래되고 훌륭한 민족전통이라고 하여도 지켜주고 꽃피워주는 위인의 손길이 없다면 한갓 지간 세월의 흔적으로만 남게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그이께서는 주제103(2014)년 10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뜻을 이어 우리 나라를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세계적인 선진문명국, 융성번영하는 강국으로 빛내어나가려는것은 조선로동당의 확고한 의지라고 확인하시었다.

민족의 우수한 전통을 적극 살려나간다는것은 우리 민족의 전통을 적극 살려나가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며 김치와 신선로, 평양명

을 장려하고 무용도 민족무용을 더욱 발전시키며 유희오락을 하여도 유희놀이와 같은 민족놀이를 더 많이 하도록 하시었다. 또한 태권도와 씨름을 널리 장려하고 해마다 전국도 대항군중체육대회를 진행하는 것을 전통화하도록 하시었다.



다채롭게 진행되는 어린이들의 민속놀이

누구나 좋아하는 민족음식 평양명면

아기자기한 어린이들의 민족웃자림

본사기자 배영일

탁월한 사상리론의 거장

더욱 깊이 새겨주신 3가지 리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제8차대회에서 그 어떤 요란한 구호를 내든 것보다도 우리 당의 숭고한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이 3가지 리념을 다시 깊이 새기는것으로써 당 제8차대회의 구호를 대신하고자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는 투쟁의 기치, 실천의 무기를 안겨주시고 그들을 투쟁과 전진의 길로 불러일으켜주시고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공화국인민들은 이 숭고한 리념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고조기, 격변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모든것이 어렵고 부족한 속에서도 올해 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해나가고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을 해방하시으로써 비로소 성취되었다. 위대한 수령님 그대로서는 해동동포들의 운명과 장래까지도 책임지시고 뜨거운 동포애로 그들을 품에 안아주시며 하나라도 더 위해주시려고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시었다.

명이나 되는 대표단과 방문단성원들을 한꺼번에 성대한 연회장에서 부르시어 사랑의 축배잔도 짙어주시었다. 총련일군들을 만나시어 만형제 집으로 알고 조국에 오라고, 울 때 부인도 꼭 데려오라고 다정히 이시며 헤어질 때면 잘 가라는 말보다 잘 갔다오라고 인사하고싶다고 하시며 석별의 아쉬움을 금치 못해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이민위천》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일찌기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이며 우리 당의 존재방식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이라는 독창적인 사상론을 천명하시었다.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사람이 바로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자이라는 정식화를 주시었다. 그이의 이 정식화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는것처럼 우리 인민을 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야 한다는 숭고한 인민관이 함축되어있다.

전적의 요, 사회주의건설의 철박한 요구로부터 새로운 전방계획기간의 자력갱생은 국가적인 자력갱생, 계획적인 자력갱생, 과학적인 자력갱생으로 발전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우리 민족의 이 열망은 민족의 태양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한겨울의 백설천지보다 더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다. 푸른 바다의 물고기들이 산을 이루고 수도의 곳곳에서 사회주의바다향기를 풍기며 사랑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있다.

를 하던 그 어려운 시기에도 동포자녀들을 위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중단없이 보내는것은 아버지수령님의 마음을 보내주는 사업이라고 하시며 일본땅에 동포자녀 한사람이라도 있는 한 끊임없이 보내주어야 한다고 하시분도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일심단결》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회에 우리식 사회주의의 불가항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제8차대회에서 이민주천에는 전당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당건설과 당활동의 출발점으로, 절대불변한 원칙으로 하는 혁명적당풍을 확고히 견지할데 대한 우리 당의 항구적인 요구가 반영되어있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인민사랑이 이렇듯 높은 물고기산을 쌓아올리고 사람들의 웃음바다, 기쁨의 바다를 펼치었다. 12월의 흰눈과 이채로운 물고기풍경은 단순한 고마움만으로 인민들의 마음에 가닿는것이 아니다.

정녕 한겨울의 강추위속에

《자력갱생》

자력갱생은 우리의 힘, 우리의 자원, 우리의 기술로 온 세계에 앞서나가는 민족자존의 정신이며 최첨단들과의 정신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제8차대회에서 우리 혁명발

생애의 마지막순간에도 사랑하는 인민들생각으로 잠 못이루시며 수도시민들의 물고기풍경과

정녕 한겨울의 강추위속에

인민사랑의 바다향기

관련한 사랑의 문건에 수표를 해주시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영상이 어려오고그 사랑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같은 사랑이 어려와 누구나 감격과 격정으로 가슴들먹인다. 랭성 그 어디에나 시련의 찬바람이 광란적으로 몰아쳐도 오직 이 땅에서만은 더 따뜻이 더 억세게 품어안아주는 사랑의 품이 있어 인민들은 아무런 근심과 걱정도 모르는것이다.

풍겨오는 사회주의바다향기는 인민사랑의 바다향기, 인민복무의 바다향기 로 느껴져 모두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준다. 하기에 공화국인민들의 행복상을 보며 세인의 부러움과 찬탄의 목소리를 터치고 있다. 《그 끝과 끝 이를 알수 없는

뜨겁고 넓은 인민사랑의 바다, 그 바다에 너도나도 풍덩 빠져들고있다. 저 수평선을 넘으면 그 사랑의 바다에 안길수 있을거라.

오해연



본사기자 배영일